

이동해 김은희 선교사의 선교 현장 이야기 “참되고 지혜롭게”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글은 저희 가정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저희 가정을 소개하고, 아울러 저희에게는 저희 가정이 지나온 선교 사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앞으로의 선교사역에 대해 계획하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은 2006년 5월 서울 서현교회와 한국외향선교회의 파송(2021년 2월에 외향선교회 사임하고 2021년 3월부터 현재 GMP소속 선교사로 있습니다.)으로 아프리카 우간다로 온지를 해로 14년 차가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선교사 사역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저희의 사역을 3기로 나누어 소개 하고자 합니다.

1. 1기 사역(2006년 ~ 2010년) : 사역 정탐과 적응기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나라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왔지만 당장 살아야 하는 집을 얻어야 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시장에 가서 쌀도 사야하고, 살림살이도 준비해야 하고, 아프면 약국과 병원에도 가야하고.... 선교사로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현지에 적응해 살아가는 삶은 그저 단기로 선교지에 방문해서 말씀과 전도지를 나누고, 공연을 보여주고, 선물을 주고 다시 돌아가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선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는 삶이다” 라는 정의를 실감하며 선교지에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살아가는 장소와 모양만 다를 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선교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간다에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과 기도 모임을 통해 사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추수 사역(Harvest Mission Africa)” 이라고 하는 사역을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은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도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신학교가 없어 배울 수가 없는 환경의 지방 목회자들에게 선교사가 찾아가서 일주일 정도 합숙하며 1년, 2년 과정으로 지도하는 이동신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우간다의 지방뿐만 아니라 우간다에 인접한 5개 나라(케냐, 탄자니아, 남수단, 르완다, 콩고)에도 기회가 되는데로 사역을 다녔습니다.



김은희 선교사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국제 학교에서 유치원 교사로 2년간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신분이기에 사례는 받지 않았지만 저희 두 아들(강진, 강현)의 학비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우간다는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젊은 나라입니다. 아이들 교육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김은희 선교사에게는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의미에서 교사로 섬긴 2년간의 기간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며 살다보니 4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안식년이란 기간을 가지게 될 즈음에 저희에게 자녀 교육이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시기에는 우간다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교육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 학교는 학비가 비싸서 감당 할 수가 없었고, 현지 학교는 환경적인 면에서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옆 나라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저희에게도 어느 덧 이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아이들을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저희는 파송 받은 후 처음으로 3개월의 짧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다시 우간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 2기 사역(2011년 ~ 2015년) : 사역 정착과 발전기



저희의 2기 사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케냐라는 또 다른 낯선 땅에 떨어뜨려 놓고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며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저희가 속해 있는 현지 선교부(MEN : Mission to Every Nation) 사역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선교부에서 하는 사역은 주로 신학교 사역과 유치원 사역이었습니다. 신학교 내에는 신학과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학과와 예배 음악과도 있어서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김은희 선교사는 유아교육 학과 산하에 있는 시범 유치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하면서 1기에 했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지요.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아프리카 추수 사역”도 병행을 했습니다. 신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에 놓여있고, 배움을 갈망하고 있어서 이 사역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만큼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했지만 신학교 방학 등을 이용하여 지방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신학교 내에 유아교육 학과 시범 유치원이 있었지만 그동안 유아교육을 전공한 선교사가 없어서 김은희 선교사는 우간다 복귀 후 그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던 유치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내의 작은 건물에 위치한 유치원은 3개 반(Baby, Middle, Top)에 세 명의 교사가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8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손대야 할지 막막했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교사와 스텝을 고용했고, 교육재료가 필요하면 보이는 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받고 있는 선교비에서 사역비와 생활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계산상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재정(전적인 하나님의 채우심으로)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고치고, 청소하고 그렇게 2년여 동안 유치원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착되어 가고 사역에 속도가 붙을 즈음에 한 선교사로부터 지인인 사업가의 후원을 통해 유치원을 새로 건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었지만 건축을 누가 감당하는냐는 문제에서는 선교부 내에 아무도 선뜻 나서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선교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모두들 자신의 사역

에 바빴기 때문이지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유치원을 담당하는 김은희 선교사의 남편인 저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은혜로 건축을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정작 후원을 해 주겠다고 한 당사자에게서는 연락이 없고 (현재 아직 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모아진 전체 건축비의 1/10의 재정으로 2012년 말에 우선 땅을 파는 것으로 유치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건축은 헌금이 다 떨어지면 멈추고, 다시 재정이 채워지면 시작하기를 반복하며 드디어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건축을 담당하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건축의 재정은 저희가 모금하고 감당해야 하지만 현지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 사역이 아니라 공동사역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재정이 모자라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동료 선교사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 선교사가 건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인지 고민이 되어 포기하고 중단하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연 있는 귀한 헌금을 보내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과 건축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무렵 저희는 2015년 두 번째 안식년 기간으로 약 4개월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3기 사역(2015년 ~ 2019년) : 사역 안정과 확장기



한국 방문을 계기로 다시 활력을 얻어 그동안 모금된 헌금으로 다시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016년 12월 2일 4년만에 감격스런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건축을 하지만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사용은 하지만 소유하지는 않는다’ 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건축을 하고 내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셨고, 재정과 재산에 대하여 선교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까지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 자유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유치원 건축의 완공으로 어린이 교육 사역에 더욱 집중하며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치원 사역만을 생각했던 저희의 계획과 예상을 넘어 초등학교도 시작하였습니다. 매년 한 학년씩 교실을 늘려 올 해(2019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교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서실과 식당, 예배당과 6개의 교실을 갖추고 180여명의 어린이와 20여명이 넘는 교사와 스텝이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교사교육, 지방 유치원 지원, 저소득 가정 어린이 일대일 학비 지원 사역 등을 비롯하여 아동 건강 검진, 바자회, 소풍 견학, 영화 상영, 운동회, 발표회 및 졸업식 등의 행사로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후원이 아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진 기적과 같은 학교를 바라볼 때마다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을 떠올리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저는 확장된 학교 사역을 도우며 신학교 강의와 지방 목회자 훈련 및 지방 교회를 돕는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며

특히 우간다 북부에 형성된 남부 수단과 콩고 난민들이 중심이 된 난민촌 안에 있는 난민 목회자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전으로 인해 본국을 떠나 우간다 난민촌에서 어렵게 지내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난민이라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이기에 교단을 떠나 연합하고 일부러 목회자들을 모으지 않아도 저절로 필요에 의해 모인 많은 목회자들을 교육할 절호의 기회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교육받는 난민 목회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역들을 그들이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학교를 통한 어린이 사역이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제가 사역하는 신학교와 지방 목회자 훈련 사역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떠나 어렵게 학업을 감당해야 했던 두 아들 강진이와 강현이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아프리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여 첫째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둘째 강현이는 대학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우간다와 케냐에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들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 4기 사역(2020년 ~ 현재) : 사역 확장과 전환기

5. 기도제목

1) 감당하고 있는 어린이 학교사역과 신학교 강의, 목회자 훈련 사역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 저희들은 지난 안식년 동안 2006년에 선교사로 파송 되기 전 훈련을 받았던 GMTC에서 다시 경력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큰 질문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 입니다. 이 질문 앞에 늘 저희의 사역을 점검하고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 사역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인도함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GMTC 61기 경력선교사 훈련을 받고 2021년 3월부터 새로운 단체인 GMP 소속으로 사역 중)

2)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함께 나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인인 사역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협력할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나 학교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서 말씀드린 우간다 북부 난민촌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에 어디든 갈 수 있는 튼튼한 4륜 구동차가 필요합니다. 우간다의 도로 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비가 오는 우기면 가고 싶어도 도로 사정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날씨에 영향 받지 않고 거침없이 사역할 수 있는 차가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이 글에는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 두 자녀(강진, 강현)에 대한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음에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 만큼 자랐습니다. 두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건강상의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때문에 사명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역의 현장은 늘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간다는 현재 지난 2020년 3월부터 COVID-19로 인해 모든 학교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학교가 다시 열리기도 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강력한 Lockdown 시행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역도 현지인들의 삶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정부는 통제를 다소 완화하여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통행과 상점 운영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모임에 제한이 있고, 학교는 내년 2022년 1월까지 열지 않기로 결정하여 학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되고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간다에서 이동해 김은희 선교사 드림

“참 되고, 지혜롭게” 는 마태복음 10: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하신 말씀으로, 저희 아이들의 이름(강진, 강현)에 담았던 저희 가정의 모토(Motto)입니다. ‘참 되고,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